

## 광주·전남지역의 중국관광객 유치와 한중간 경제·문화적 통합의 확대

김성후\* · 김정구\*\*

### 목 차

I. 서론	IV.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
II. 지역의 중국관광객 유치의 문제점과 시사점	V.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의 활용
III. 한중경제협력의 의미	VI. 결론

### 〔 논문 요약 〕

광주시와 전남도는 우선 동양문화권으로서 인접국인 중국의 관광객의 한국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 지역까지 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최대 인접국이고 송출측면에서도 관광대국인 중국인의 잠재적인 해외관광 수요를 내다보고 그들의 관광성향과 관광욕구(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취향에 맞도록 지역의 관광상품과 관광코스를 흥미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지역의 각종 역사와 문화자원중 중국과 연관이 있고 중국인이 흥미를 가진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마케팅하여 중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남도문화관광을 만들어 가면 중국관광객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관광객의 국내 유입 증대는 한국인의 중국여행처럼 한중간의 경제적 통합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 통합에도 기여하게 된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역인 상해 일대의 경제권은 이 지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업과 무역교류를 통한 국제적 지역경제통합은 물론이고 인적교류를 통한 다음 단계의 사회·문화적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적교류의 활성화는 이 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다시 국제적 지역경제통합에 기여하

\* 동신대학교 교수, 제1저자

\*\* 동신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동북아연구>

게 될 것이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선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내세우는 한편 중국인이 호감을 가질 문화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 지역의 청정환경을 잘 홍보하면 생태 및 환경관광도 유력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한 중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틈새 관광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초기처럼 활성화 되도록 국내외 관광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공항에 인접한 한중산업단지의 중국산업단지화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중국관광객유치, 한중 경제통합, 관광산업, 관광자원, 관광콘텐츠

## I. 서 론

제2차세계대전 이후 GATT체제가 확립되면서 이루어진 무역자유화 추세는 1980년대 이후에는 동서양진영간의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국제화와 세계화의 추세로 이어졌고 드디어 중국도 개방경제정책을 내세워 WTO체제하의 세계시장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기에 동북아경제통합과 환황해권 경제통합이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한중관계는 경제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무역국이 되는 밀착된 관계에 이르렀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그 비중을 세계경제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2008년에는 독일을 추월하여 세계 제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과 견줄 시기도 멀지 않은 것으로 자주 논의되고 있다.

특히 관광분야에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1억명이 넘는 해외관광 수요층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 8월의 베이징올림픽대회는 역대 어느 올림픽보다도 대규모 대회로 치러져 중국의 위상을 높였고 국제적인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는 상해의 해양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도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로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관광이미지를 선양하는데 크게 활용되었다.

우리나라는 14억의 인구와 경제대국인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이라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동질성도 가지고 있어 잠재적인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양국간의 사회 및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한중관계는 그 어느 시기보다 밀접한 관

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은 황해를 두고 중국과 대안(對岸)을 이루고 있어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도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1년 7월 5일에 광주시와 중국의 상해시 사이에는 국제항공노선이 신설되었으며 그 이후 항공노선이 추가되었고 광주와 상해간 증편을 거듭하여 주당 10여편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목포항과 상해항간에는 2002년 11월 20일에 러스크 호가 취항하여 이 지역도 중국과의 교류확대에 따른 수혜에 편승하고자 했다<sup>1)</sup>. 동양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에서 중국팀은 그 해 6월 가장 먼저 코스타리카 팀과 광주에서 일전을 치르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중국인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환황해권 지역경제통합의 확대추세 속에서 한중간에 걸친 대안지역의 경제협력과 경제교류는 양지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상호간에 해외관광객 숫자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동시에 관광객 숫자의 증가는 지역관광산업을 촉진하여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윈윈게임의 구조를 감안하여 이 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구조의 서비스화와 업그레이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2장에서는 한반도 남측에서 중국대륙의 중심적 대안지역인 광주·전남지역의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수도권이나 동남권에 비해 극히 열세인 점을 살펴본 후 그 시사점을 짚어 볼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는 지역주의하에서 지역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한중경제협력의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제협력으로 인한 양국간의 경제성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양국 관광객의 상호간 이동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관광객의 유치방안에 대해 분석한 후 제5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지역 관광자원의 목록을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

## II. 지역의 중국관광객 유치의 문제점과 시사점

한중수교 이후 중국관광객은 교통편과 관광인프라가 좋은 수도권과 동남권에 치우치는 등 광주·전남지역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러한 형편과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 지역은 논의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적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광주·전남 지역은 지역내의 문화관광과 생태 및 환경관광을 활용

1) 운항적자 등 경제여건이 좋지 못하여 목포의 여객선 항로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광주국제공항을 승계한 무한국제공항의 국제선도 대폭 감소되어 2011년 6월 현재는 중국동방항공의 광주와 상해간 주2편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동북아연구〉

하고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광지 주민에 의한 관광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중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데 더욱 열을 올리고 중국관광객의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자면 산업혁명이후 제2차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한 국가의 국력은 제조업의 생산력이 좌우하였지만 대중관광(mass tourism)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소수의 부유층에 국한되었던 관광산업의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문화·관광산업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서 정보·생명산업과 더불어 21세기에 전세계적으로 3대 전략산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관광산업은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편리한 교통으로 인하여 비약적 발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주5일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관광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은 향락산업이 아니라 굴뚝이 없는 청정산업이면서도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가는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듯 한 사회의 복합적인 면을 가진 관광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유망한 중국인 관광객의 지역내 유치는 광주시를 국제도시로 만들고,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광의 시대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남도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특화하여 환황해권을 이루고 있는 대안(對岸)의 중국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흥미를 돋을 수 있는 각종 관광상품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남도지역의 고품격 이미지 구축을 통하여 생태와 자연, 역사와 문화, 체험과 참여를 특화시킨 관광상품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독특하고 차별적인 ‘남도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더불어 이를 보완하는 격조 높은 관광기념품의 개발도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역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전라남도 지역내 22개 시군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중국인의 여행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은 새로운 관광트렌드, 즉 관광객의 까다로운 욕구(needs)를 수용함으로써 역내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의 전기를 이 지역내에 마련하자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광주와 전남지역의 자발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시민들의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아울러 친절과 환대라는 관광서비스도 개선하고 전반적인 지역적 어메니티(amenities)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적인 거리가 가까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안지역의 상해, 절강성, 강소성의 잠재적인 해외관광객에 주목해야 한다.

즉, 장차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고도의 궤도에 오르면서 고소득층이 더욱 두터워지면 현재의 잠재적 해외관광객을 실제로 송출하게 될 지역을 겨냥해야 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방안, 즉 인바운드 여행객의 숫자도 아웃바운드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엄청난 잠재관광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해외관광객 유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이 아니라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관광객 수용태세도 자발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 Ⅲ. 한중 경제협력의 의미

흔히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지역적으로 인접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체결하여 무역과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관세 또는 무역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국끼리는 특정상품에 대해 관세를 내리거나 철폐하면서 무역장애를 제거하고 공동의 재정 및 금융정책을 실시하며, 공동의 통화를 제정하는 등의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가장 진전된 형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경제통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발라사는 경제통합을 차별화의 정도와 그 발전단계에 따라서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sup>2)</sup> 그 첫 단계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이며, 차례로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이 이에 해당된다.

무역학에서는 국제무역과 생산요소의 이동 등 측면에서 이상의 5단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완전경제통합의 상위 개념은 정치적 통합(political integration)인데 이는 정치적 통일체로서 한 국가나 연방체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치적 통합의 상위 개념은 사회적통합(social integration)과 문화적 통합이 거론되는데 이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동질성이 포함 된 대상을 분류기준으로 삼게 된다.

‘동북아경제권’, ‘환황해권’, ‘APEC’, ‘환동해권’ 등이 거론되는 동북아권은 지역주의(regionalism)와 경제통합이 진행중인데 완전경제통합까지는 유럽의 EU와는 달리 여러 가지 난제와 장벽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경제통합을 향한 자연적인 추세는 여러 가

2) Balassa, Bel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61, pp. 2-3.

〈동북아연구〉

지 애로점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는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적교류와 사회적 교류 및 문화적 교류도 인접성과 상호 동질성을 바탕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동북아권의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나타나 고급소비재인 해외관광(overseas tourism)에 대한 폭발적이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에서 앞선 우리나라에서 중국관광이 유행을 이루어 이제는 정점을 지난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차 중국인의 해외관광객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더불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14억이란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미 관광송출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고급 관광수요는 북미와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중저가 해외관광객을 위주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대중국관광객 수용태세가 갖추어지고 중국관광객에게 관광 매력물(tourism attractions)을 제공하고 관광의 가치성을 높인다면 북미와 구미로 진출하는 고급 중국관광객을 상당수 흡인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의 고급 해외여행시장을 두고 북미와 구미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을 분명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동질성은 역사·문화체험관광 측면에서 중국관광객에게 또 다른 매력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황해를 가로지른 대안지역(對岸地域)인 광주와 전남권역은 상호간 무역 및 교차 해외직접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제사회단체나 교육단체간의 교류에 있어서도 명분과 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점과 여건을 잘 살려 이 지역은 경제협력의 강화에 따른 상호호혜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인의 대중관광이 광범위하게 선행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중국인의 대한관광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최대한 이 지역에서 수용할 지역경제정책차원과 관광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 외에도 세계역사는 갈등을 겪는 나라 사이에도 얼마든지 협력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두 번이나 세계대전의 무대가 된 유럽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각축과 경쟁으로 점철된 동남아와 중남미가 그렇다. 이들 지역은 민감한 정치·사회보다 소프트한 경제와 사회 및 문화 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간 덕분에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 국가들이 꾸준히 배출됐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기적처럼 부흥해 1970~80년대를 주름잡았던 일본, '네 마리의 용'이란 찬사를 들으며 90년대를 대표했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브릭스(BRICs)를 대표하는 중국이 이에 해당되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도 세계경제에서 주목의 대상이다.

이 가운데서도 한중일 3국은 특히 주목할만 하다. 2010말 기준으로 "세 나라의 인구는 전 세계의 22.3%인 15억5000만 명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합

도한다. 국내총생산(GDP)의 합은 12조4000억 달러로 NAFTA(17조3000억 달러)와 EU(16조2000억 달러)를 뒤쫓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DB)은 한·중·일에 아세안까지 합친다면 경제 규모가 2014년 미국을 추월하고 2020년에는 EU마저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sup>3)</sup>.

오연호(2011)는 한중일 3국은 지역 통합을 향한 여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5단계 경제 통합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벨라 발라사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동맹-공동시장-통화동맹-경제통합’ 유형을 제시하면서 우선 FTA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의 한·중·일 공동연구는 한·중, 한·일 양자 간보다 3국 간 FTA가 더 이롭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sup>4)</sup>.

이처럼 한중일이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을 이룬 국제경제체제의 현실에서 이 지역은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상하이, 톈진, 광저우 등 중국의 해안경제권과 대안을 이루고 있으므로 경제협력의 추구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 등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관광산업의 개방화 등 지역경제의 국제화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 IV.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

광주, 특히 전라남도에는 유무형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자평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내국인 위주의 문화유적지라 볼 수 있다.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여 외국 관광객에게 흥미 있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기술이나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관광상품은 아직 제대로 틀이 잡히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장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이 현재의 문화관광상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1. 광주·전남지역의 인지도 홍보

중국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한국이나 연예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부산, 제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광주나 전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05년도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602.3만명인데 이중에서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3) 오연호, “한중일 ‘불신의 100년’을 끝내려면”, 인터넷 중앙일보, 2011. 6. 14.

4) 오연호, “한중일 ‘불신의 100년’을 끝내려면”, 인터넷 중앙일보, 2011. 6. 14.

<동북아연구>

르) 입국자는 130만명이나 되며, 2006년 총입국자는 615.5만명에 중화권 입국자는 176.8만명에 이르렀다. 2006년도 일본관광객 233.9만명에 이어 2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일본관광객이 302.3만명인데 비해 중화권 관광객은 262.9백만명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3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sup>5)</sup> 앞으로 5년 후면 중화권이 제일 많은 입국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sup>6)</sup>.

중국인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수적이다. 광주와 전남은 단순 관광지가 아닌 문화, 예술, 자동차, 첨단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것을 중국 전역에 확산시켜 최소한 20% 유치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역사적 사실과 개인적이거나 국가적인 ‘인연’ 또는 연고관계에 집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광주와 전남지역은 고래로부터 중국과 바닷길이 가까워 과거부터 중국과 빈번하게 교류를 했고 중국과 얽힌 역사적 인연이 수두룩함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관광객 유치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는 수도권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관광객 유치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를 주축으로 한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수도권 5개 시도가 공동출자해 출범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sup>7)</sup>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고로 협의회는 우선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SINA.com과 함께 수도권 관광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이를 위해 SINA.com의 전문 촬영팀이 직접 방문해 5개 시도 관광명소 사진을 찍고 이를 사이트에 게시한 후 게시물과 지역정보, 상품예약페이지를 연결해 실제 상품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회는 2011년 6월 ‘북경국제여유박람회’와 9월 ‘광둥국제여유박람회’등 중국 현지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 참석해 수도권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동설명회에서는 한류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포토존 및 한복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5개 시도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담은 특집 TV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에 5개 시도 공연단의 상호 교류도 추진하였다<sup>8)</sup>.

경기도 관광협력 실무 관계자는 “올해는 주관 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5개 시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도권 관광 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지역 조건이 유리한 수도권에서도 중국관광객 유치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점은 이 지역에서도 반드시 참고할 점으로 보인다.

5) www.ggholic.tistory.com/2680. 및 뉴스인경기도, 2011. 2. 28.

6) www.korean.visitkorea.co.kr(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관광 통계 참조.

7) 이 협의회는 매년 번갈아가며 주관 자치단체를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은 경기도가 협의회 주관 자치단체가 되는 해이다. 경기도는 올해 방한 중국 방문객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8) www.ggholic.tistory.com/2680. 및 뉴스인경기도, 2011. 2. 28.

## 2.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중국인 관광객이 직접 무안공항을 통해 들어오지만 그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거의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더라도 전남지역에 도착하자면 버스를 이용하거나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선을 이용해야 하므로 대강 5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시간적 비용과 현실적인 비용이 대폭 추가되므로 광주·전남지역에 중국인이 관광을 오는 것은 꺼리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취항하는 국제선이 있는 공항은 인천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이다. 인천공항은 120개 지역으로, 김해공항은 22개 지역으로 취항하고 있다. 대구공항은 7개 지역으로, 제주공항은 8개 지역, 청주공항은 5개 지역으로 취항하고 있다. 광주공항은 2009년 1월 현재 심양노선 등 중국쪽의 부정기 노선이 모두 중단되어 상해에 단 1개 노선만이 취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국제공항은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해 정기노선 이외에 북경, 심양, 장사 등으로 재취항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광주공항과의 통합이 시급한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항공노선이 다변화 되면 어느 정도 광주 전남에 입국하는 관광객은 불어나며, 또한 유치하는데 편리하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광주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전남지역이 다양한 볼거리 있는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초기처럼 활성화 되도록 국내외 관광객수요를 확대에 역점을 둔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3. 중국인 단체관광객용 중저가호텔 완비

메트로폴리탄에서는 도시의 관광 및 숙박인프라로서 호텔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지구의 하나로서 인구밀집지역이면서도 교통여건이 좋은 금호지구의 운천저수지 부근이나, 풍암주거지구 인근의 중앙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등에 특급호텔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와 찬반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광주시 상무지구에 특1급호텔인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이 입지한 후<sup>9)</sup> 2010년에는 역시 특1급호텔인 홀리데이인광주호텔이 두 번째로 개장하였다.

광주의 경우 보통 객실이 60개 미만으로서 너무 빈약한 실정이며 관광선진국의 호텔과 비교하면 초라하고 아주 영세한 편이다. 최근까지 대도시라는 광주에 특1급호텔이 하나 없었다는 사실은 광주시 관광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전남의 경우만 해도 목포시 인근 영암에 삼호현대호텔이 단 하나 입지하여 서남권의 고급숙박수요에 부응했을 뿐이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급호텔도 있어야 하지만, 중저가호텔도 함께 들어서

9) 2008년 가을에 개장함.

서 특급호텔과 보완을 이루어야 한다.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중저가호텔은 거의 없는 점이다. 모텔은 많이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내부구조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광주시나 전남도에서는 장차 늘어날 중국인 관광객의 수용태세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중저가호텔의 건설을 유도하여 관광시설의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4. 중국관광객 유치에 위한 팸투어 실시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은 매년 중국 각 지방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판매에 나서고 있다. 무료로 초청하여 식사는 물론 민속공연, 선물까지 제공하며,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행사를 매년 수차례하고 있으며, 이 때 항공사, 호텔, 여행사, 버스업체와 공동으로 판매한다.

이 지역의 관광관련 업계에서도 외국에 홍보차 방문하게 되면, 광주시, 전라남도, 관광협회, 항공사, 호텔, 여행사, 식당, 버스업체까지 참여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광주시나 전남도의 공무원 실무자 약간명 위주로 홍보차 방문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관광업의 특성이다. 이런 의례적인 방문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확실한 수단으로서 평가하기 어렵고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서 심한 경우 그저 한번 현지를 둘러보는 것이 되거나 현지답사보고용이 되기 쉬운 것이다.

여행사측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상품은 가보지 않는 지역이나 관광대상물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요인 때문에 자신 있게 판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자원과 관광매력물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여행사 대표나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의 특성을 홍보하는 팸투어를 실시하는 것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 5. 중국관광객을 위한 한자의 안내판 표시 병기

2007년 이전에는 무안국제공항 대신 광주국제공항이 서남권의 지역거점공항 역할을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자표기가 당시에 광주시 주변에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한자문화권이라는 광주시에 도착하여 시내에 진입할 때에 ‘광주’와 ‘Gwangju’만 보이고 ‘光州’라 표기는 드문데 국제화시대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환황해권시대를 제창하는 마당에 반드시 현대의 중국어로 도로 및 시설물 안내판을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관광지나 관광유적지인 경우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반대의 경우로 한국 관광객들이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도시인 연변의 연길에 가면 한글과 한자로 ‘연길’과 ‘延吉’이 나란히 표기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내의 한국인 후예들의 실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첫눈에도 대단히 반가

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은 길거리의 풍경에서 한글을 접하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중국내 조선족의 애환과 삶의 양태에 대해 우선 단편적이거나 시각적으로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내의 ‘한글’ 표기 안내판은 현지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의 의미를 각인시켜 주고 관광을 통해 현지의 새로운 풍물과 어느 정도 교감을 갖게 해준다. 더 나아가 현지 주민의 삶과 일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는 이미 문화로 자리 잡은 ‘한글’이라는 문화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자표기는 본토중국인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자세대 다수가 엄연히 생존하여 있는 우리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화교들까지 대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제일 먼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2002년 월드컵광주대회에 즈음하여 한자표기를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나 광주에서 이루어진 중국팀의 월드컵대회 이후엔 추진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잠재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원격지라는 이유로 내국인 관광객유치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관광정책목표로 내세웠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차원에서 안내판 정비부터 더욱 철저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70% 정도가 모두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미국 등 미주지역 여행객이나 구주지역 여행객보다 한자문화권 여행객이 우선이라는 정책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구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화권 여행객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도로안내판이 주로 한글과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에 한국인들이 여행할 때 현지 언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해도 현지의 지리나 위치를 파악하기 편리한 것은 길거리의 상호나 안내판이 한자와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중국은 한자권이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 현지도 히라가나보다 한자사용의 예가 더 많으므로 한자문화권 여행객은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도 현지 사정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양문화권의 한자는 동양의 국제어라고 할 수 있다. 한자문화권에서 온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인접국으로서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자표기 안내판 사례가 적어서 무척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 일본 구주지방의 아소산과 구마모토성 등을 비롯한 관광지, 중국의 장가계를 비롯한 관광지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한글표기가 많이 병기되어 있다. 이토록 일본까지 국력이 낮은 한국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현지 관광관련 사업체의 사업주와 현지의 지역관광정책 추진 입안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 6. 야간 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활성화

세계의 유명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있다. 또한 밤의 경치가 아름다워야 더욱 유명한 도시로 명성을 갖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잠재관광객을 부르게 된다. 아시아지역에서 야경이 뛰어나기로는 홍콩의 화려한 야간 조명을 들 수 있고 상해시 외탄강변 고건축물의 휘황찬란한 거리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도시의 야경은 관광명소로 유명하여 야간에도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변화하기 이를 데 없고 두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야간관광은 조명시설이 필수적인데 상해의 외탄에서 바라본 야경과 고가도로 대부분이 조명시설을 하여 아름다운 야경을 관광객에게 선사하고 있다.

파리의 거리는 가로수에 설치된 조명이라든가 건물들에 설치된 조명등이 조화를 이루어 빛의 도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샹젤리제 거리는 거대한 가로수와 쪽 뻗어나간 광로 도로에 야간조명까지 일조를 하여 파리의 밤풍경을 돋보이게 하고 있고 수많은 관광객을 야간에도 불러들이고 있다. 아울러 파리 중심부를 흐르는 유명한 세느 강변에 세워진 다리 교각과 기둥을 무지개 색으로 장식하여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 동경의 ‘레이보우 브리지’는 주변 호텔과 쇼핑센터, 놀이시설 등이 주는 조화로운 조명 때문에 밤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어 동경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야간에는 들려보는 곳이 되었다. 가로등 역시 독특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색깔로 조화를 이루어 가로등 자체가 뛰어난 조형물로서 동경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는 어수선하고 어둡고, 네온사인이나 미관을 중시하기보다는 기능만 중시하여 상점을 홍보하는 간판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도시의 야경을 밝히는 조명시설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할 때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밤 공간의 예술을 창조하는 뛰어난 관광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지역의 4대 주요 도시인 광주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의 밤거리를 외지 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나 외관이 수려한 빌딩들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의 야경은 옛 중심지역이었던 구도청 주변의 금남로, 충장로, 중앙로, 황금동 일대가 가장 적절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흥상업지역인 상무지구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야경의 거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야경관광 외에도 관광객은 야간의 유흥문화에 흥미를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광주시의 야간풍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층빌딩의 경관 조명설치를 권장하고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포시가 유달산 정상에 밤에도 오를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한 것과 바로 인근의 선창에 야간풍경이 펼쳐지는 것도 야간 관광시설로서 잘 활용할 수 있다.

## 7. 지역 대표김치축제의 활성화

매년 광주와 전남에서 열리고 있는 김치축제나 남도 음식축제가 더 성대하게 개최되어 빅 이벤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전국 각 지역에서도 김치축제나 음식축제와 같은 유사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맛의 고장이란 명성으로 인하여 광주나 전남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다른 지역이 김치 관련 축제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주·전남이 음식축제를 더욱 부각시켜 중국관광객을 비롯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자면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테마를 강화하고, 그 기간에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거의 같은 시기인 가을철에 개최하는데, 두 축제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김치를 사랑하고 김치의 테마에 반한 중국관광객이라면 광주나 전남을 두 차례에 걸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물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몇 가지 전통 음식이 내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관광객이라면 어떤 음식으로 추천해야 할지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막상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먹을까 하면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 따라서 음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북경요리, 상해요리, 광둥요리, 사천요리를 중국관광객용 중국식당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음식특성과 중국관광객의 식성을 고려하여 ‘전남요리’ 또는 ‘광주요리’도 만들어야 한다.

김치라는 국제어는 Kimchi이지만, 한자표기도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김치를 포채(泡菜; 파오차이)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김채(金菜; 쥘차이)로 표기하여 중국관광객에게 각인 시킨다면 발음도 비슷하여 관광스토리텔링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8. 광주비엔날레의 관광상품화

광주에서 열리는 축제는 전통적인 김치축제와 미술관련 행사성격의 비엔날레이다. 지금까지 비엔날레는 국제적인 축제라기보다는 국내 잔치에 불과하여 행사기간에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작품을 출연한 사람을 제외하면 방문한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형편이다.

비엔날레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광주비엔날레라고 말하면 세계 모든 사람이 알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비엔날레를 소개할 때 ‘광주미술전(光州美術展)’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다.

중국 상해에도 비엔날레가 있는데 ‘상해쌍년전(上海雙年展)’란 명칭을 갖는 것처럼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쌍년전(光州雙年展)’으로 소개되고 있고 광주시의 도로안내판에도 그렇게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비엔날레는 중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자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용어인 ‘광주국제미술대전(光州國際美術大典)’

〈동북아연구〉

중국어표기를 개칭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엔날레가 내국인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나아가 중국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대중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존이 가능한 주요한 작품은 영구보존할 수 있는 전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 9. 선진산업시찰의 활성화

광주가 중국보다 앞선 분야로는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이다. 중국인들은 우리보다 이러한 산업시찰을 더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의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가전공장, 여천공단이나 대불공단 등의 공장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에게 광주와 전남의 선진화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광주나 전남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한국제품에 대한 우수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것도 광주에서 직접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심어 줄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전라남도 지역의 관광지를 보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 10. 지역축제 및 민속공연의 관광산업화

광주에는 비엔날레와 광주김치축제가 있으며 전남의 대표적인 축제는 남도음식축제, 함평나비축제, 보성다향제, 완도장보고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곡성심청축제 등 이 있다.

김치축제기간에는 김치만의 행사가 아닌 다양한 축제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적인 토속적인 맛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하고, 세계의 김치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 떡이나 술 등이 함께 어울리고, 떡을 만들거나 막걸리가 어울리면 토속적인 놀이가 될 것이고 한국적인 문화로 소개되어 중국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다.

함평나비축제, 보성다향제, 완도장보고축제, 순천낙안민속마을 축제는 행사의 일부라도 관광용으로 상설화할 수 있다면 하여 상시적으로 중국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독특한 민속공연이다.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한 민속공연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가부키쇼나 중국의 경극처럼 우리 민속의 자랑거리인 사물놀이 등을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1. 면세점 및 쇼핑센터 설치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세점이나 쇼핑센터가 있어야 한다. 면세점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은 면세점이라면 무조건 저렴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면세점에 가는 것을 선호한다.

면세점의 설치는 서울이나 대도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알맞은

면세점으로 변형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안국제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하는 일시에 면세점을 개장하여 외국관광객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폐쇄했었지만 전남개발공사가 2010년 1월 승계한 이후로는 매출액이 5.3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11)</sup>.

아울러 광주와 전남의 특산품이나 토산품을 중국관광객의 취향에 맞게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김치를 지역특산품으로 마케팅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주배를 시식체험하는 것도 검토하고 아울러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정 재래시장도 중국인관광용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서울의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같이 하나의 볼거리와 살거리를 만들어 가보고 싶어 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도록 지역정책당국과 재래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 12. 차이나타운의 건설

광주시의 경우 종전에는 기존 시가지의 일부인 동구 계림동 일대에 차이나타운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어느 지역이나 다양한 민족이 살아야 도시가 발전하고 국제화 될 수 있다. 차이나타운을 작은 규모나마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중국 심양(瀋陽)의 서탑(西塔)은 조선족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으로 심양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이면 누구나 서탑에 가게 된다. 중국에서는 연길, 심양 이외에도 북경, 하얼빈, 장춘, 청도, 상해, 연대, 위해 등 각처에서 코리아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광주시나 한중산업단지가 들어설 무안도 중국인의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화자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인 여행자나 관광객이 증가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의 활용

역사적으로 오래된 유명 유적지는 관광지로서 역사관광을 추구하는 관광객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아무리 유명한 역사관광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관광취향은 대중관광이라는 트렌드가 시사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약간만 콘텐츠 내용을 바꾼 것이거나, 전시분위기, 또는 디자인 등 사소한 것을

11) 한국일보 인터넷판, 2011. 6. 26.

<동북아연구>

바꾼 것이라고 할지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개그맨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의 특성이다. 역사·문화관광도 마찬가지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제시한다. 이런 관광자원은 중국관광객에게 특별히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중국관광객의 까다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유난히 역사적 사실과 인연에 연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역사에는 중국인들의 그런 성향을 자극할 수 있는 인물로서 완도의 장보고, 나주의 최부, 광주의 정율성을 들 수 있는데 아주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관광콘텐츠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적으로서 화순의 주자묘, 임진왜란시 중국장군이었던 진린과 관련이 있는 해남의 황조별묘(皇朝別廟), 역시 진린과 관련이 있는 완도의 관왕묘(關王廟)가 있는데 이런 관광자원도 관광스토리를 개발하여 중국관광객의 유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의 관광스토리텔링은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할 때 이 지역의 오랜 역사는 중국과 고대로부터 육상과 해상을 통한 교류가 있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인의 관광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산재한 역사관광자원의 유래와 의미는 중국과의 오랜 역사적 교류의 결과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은 서양문물을 대할 때 기대하는 중국관광객의 기호와 차별되는 점에서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입안자들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이 아주 선진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면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역사문화자원이 중국인의 문화관광욕구를 충족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관광객을 유인하는 정책적 지향점은 지역내에 다수 존재하는 역사 및 문화관광자원을 일정한 테마로 담아내야 하는데 바로 그 그릇이 중국과 한국의 오랜 역사적 동반자관계 및 긴밀한 역사적 교류라는 상호 공감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광주월드컵 경기장

중국이 월드컵에 참가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월드컵 경기장을 직접 가보고 싶어 한다. 2002년은 중국의 월드컵 진출이 처음이었으며, 그것도 광주에서 처음 참가하였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기념될 만한 곳이다.

월드컵 경기장에 ‘중국참가기념비’를 건립한다면, 많은 중국인은 이곳을 방문하고, 기념사진 한 장 촬영하는 곳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내에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2. 가사문화권

광주호 주변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풍광이 아름다워 시인, 묵객들이 출입하면서 시작을 즐겼던 곳이다. 시조와 한시로 표현 못하는 감정을 가사로 표현한 것이다. 가사문학의 본거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우연이 아닌 듯 하다. 이러한 본거지를 우리는 단순히 정자로만 여기는 것이 관광산업에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광주호에서 배를 타고 유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광주호팔경인 식영정, 소쇄원, 환벽당, 송강정, 면양정, 취가정, 풍암정, 독수정을 하나의 관광지로 묶어야 한다. 즉, 관광클러스터가 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사문학관, 식영정, 환벽당, 소쇄원 등의 인근 토지는 테마를 강화하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매입하여 정원을 만들거나 관련 테마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 3. 유교문화유적지

광주향교는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 동양 3국을 가리켜 유교문화권이라 말한다. 유교문화란 공자의 사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향교이다. 광주향교를 대표적인 유교문화 유적지로 만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광주향교를 찾아가면 감동하는 몇 가지가 있다. 중국에서 공자나 맹자를 모시는 곳은 많지 않다. 산둥성의 곡부, 북경, 하얼빈, 남경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시군마다 향교가 거의 있을 정도로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들 향교를 모두 관광상품화 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표적인 것을 골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주향교와 나주향교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주향교는 한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중국관광객들이 그 공부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주자(朱子)선생이 쓴 명륜당(明倫堂)이란 글자에 감동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향교내의 문서에는 공자, 맹자, 증자 등 많은 역대 중국인물이 나오므로 중국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왕인박사(王仁博士) 유적지는 공자의 사상을 전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하얼빈의 공자사당을 가보면 공자의 사상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 일본으로 왕인박사가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 왕인박사는 일본의 학자 중에 제일의 학자로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인의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강항선생 유적지는 주자학을 일본에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일본의 4대 학자 중에 왕인박사와 후지하라 세이카가 유명하다. 그 후지하라의 스승이 영광출신 강항선생이다. 강항선생을 모신 사당은 내산서원이다. 왕인박사와 강항선생의 유적지는 일본인들에게도 호평을 받는 관광지이다.

#### 4. 불교문화유적지

운주사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성격을 가진 신비한 사찰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절이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사찰의 유래와 재미있는 전설 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안내시스템과 외국어 소통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운주사는 일반적인 사찰이 아닌 특수한 사찰이기 때문에 그 곳에 자리 잡은 불교의 세계관을 새로운 방향에서 적극 모색하는 것이 지역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운주사는 전통사찰과는 달리 민중의 미륵사상을 가진 사찰로서 창건의 동기나 지향하는 바가 일반 사찰과 다르고 아직도 유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만큼 신비한 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관광테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영광군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순천의 승보사찰 송광사, 해남의 대흥사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으며, 광주의 무각사는 시내권에 입지하므로 테마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사찰건물을 추가하면 중국인 관광객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불교와 관련이 있는 선암사도 빠뜨릴 수 없는 곳이다. 아울러 이 지역의 사찰은 동양사상을 가진 중국관광객에게 템플스테이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5. 중국혁명 음악가 정율성과 중국표류기의 저자 최부

이 지역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에게 큰 흥미를 일으키고 과거 역사속에서 한중문화교류에 대해 공감을 일으킬 테마인물로 이 지역출신의 정율성과 최부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일대기와 출생지에 남아 있는 유적을 통하여 중국관광객의 문화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재중동포들은 축제에 행진곡이 울리면 ‘이 곡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정율성선생이 작곡한 노래’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가 되었으며,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행진곡 등 무려 360여 편을 창작하였다<sup>12)</sup>.

나주시 동강면에서 태어난 최부(1454-1504)는 제주도 추쇄경차관으로 있을 때, 1488년 부친상의 연락을 받고 귀향하는 도중 폭풍으로 인하여 동승한 43명이 14일간 바다에서 표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절강성 태주부 임해현에 상륙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여 그 일행도 왜구로 오인 받았으나, 조선인 표류자로 드러나 곳곳에서 존대를 받았다.

12) 정율성선생은 1914년 광주시 불로동에서 태어났으며, 화순 능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냈고, 광주시 양림동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로서 그의 집안은 애국지사 집안이었으며, 부친의 영향으로 그의 형은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그의 형이 남경 조선의열단 군정학교의 밀령을 지니고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여러 차례 상해로부터 입국하였고, 1933년 그의 형을 따라 한 무리의 청년들과 함께 목포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상해에서 러시아 음악가 크리노아를 만나 중국 3대 음악가가 되었다.

최부의 제주와 식견은 출중하여 명나라 황제의 상도 받았으며, 중국에서 135일간 체류하였다. 영과와 소흥을 거쳐 항주에 도착하였고, 항주에서 경향대운하를 따라 소주, 양주, 서주, 친진을 거쳐 북경에 도착한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다시 북경을 출발한 후 산해관과 압록강을 거쳐 귀국하였는데, 여정이 8천여리에 달했다. 그는 성종의 명으로 '표해록'을 찬술하여 올렸다.

표해록<sup>13)</sup>은 당시 명나라의 해안방비, 정치, 운하, 지리, 민속, 언어, 문화와 두 나라 관계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분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화순의 주자묘와 적벽의 물염정

화순 능주의 주자묘(朱子廟)는 주자선생의 증손인 주잠선생이 이곳에 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후손들이 만든 사당이지만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주자선생을 모신다는 것만 보아도 무척 친근감을 갖고 있으며,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화순군의 동북호에 있는 적벽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적벽대전으로 유명하다. 양자강에 있는 적벽은 중국인들은 가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중국의 적벽과 비슷한 이곳의 적벽을 보여 주면 관광자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적벽 바로 옆의 물염정은 황하의 지류인 경수(溇水)와 위수(渭水)를 연상하게 된다. 위수는 맑은 물이 흐르고, 경수는 흐린 물이 흐른다. 두 강물이 만나지만 한참동안 섞이지 않고 흘러간다. 그래서 경수와 위수가 분명히 나뉘어져 경위분명(溇渭分明)이란 고사성어도 생겼다. 이곳에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물염정기(勿染亭記)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 훌륭한 관광스토리텔링의 소재이다.

## 7. 곡성 심청공원(沈淸公園)과 무후사(武侯祠)

곡성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주산시(舟山市) 보타구(普陀區)의 심청원은 테마관광시설로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곡성군도 광한루원처럼 심청원을 만들고, 광한루(廣寒樓)와 같은 심청루(沈淸樓)나 심청의 석상을 만들어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심청루에서 심청가 공연을 한다던가, 판소리 경연대회를 열어야 한다.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심청의 이야기를 담아낼 심청원을 만들어야 한다.

무후사가 곡성군에 있다는 것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무후사는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의 승상으로서 지략이 뛰어났던 제갈공명(諸葛孔明)을 모시는 사당이

13) 표해록은 1573년 외손 유희춘이 발간하여 세상에 내놓았으며, 일본에서는 1769년 청전군금에 의해 당도행정기로, 미국에서는 1965년 John Meskill에 의해 영어로, 1979년에 최기홍선생이 한글로, 1992년 북경대학교 갈진가교수에 의해 중국어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동북아연구〉

다. 원래 제갈공명을 모시는 사당은 평안도 영유현에 선조의 명에 의해 세워졌으나, 분리하여 모시게 되었다.

중국 내륙지방인 사천성의 성도, 섬서성 먼현, 절강성 난계시의 제갈촌에는 제갈공명의 사당인 무후사가 있다. 무후사에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두보의 축상이란 시비가 있다.<sup>14)</sup> 우리나라에서도 곡성의 무후사에 두보의 시비를 세운다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8. 해신(海神) 촬영지 완도

완도는 근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역사드라마 ‘해신’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완도의 오픈 세트장엔 당나라시대의 거리가 재현되어 있는데 잘 만들어져 있어 중국관광객유치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개천의 냇물을 이용하여 운하를 만들어 놓았으며, 바닷가에 있는 청해 소세포구의 세트장도 아래에서 바라보면 잘 꾸며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영화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석(無錫)의 삼국성에서 해신의 일부가 촬영되기도 하였다. 삼국성은 삼국지의 촬영지로 유명하며, 이외에 많은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

‘해신’에는 장보고가 중국에 있을 때 머물렀던 양주(揚州)가 자주 등장한다. 바로 세트장이 양주거리를 나타낸다. 양주는 신라시대 장보고뿐만 아니라, 최치원선생이 벼슬한 곳이기도 한다. 양주에는 최치원선생의 기념관이 있다. 바로 이곳에서 유학하면서 ‘추야우중(秋夜雨中)’이라는 훌륭한 시를 남겼고,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났을 때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은 유명한 글이다.<sup>15)</sup>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을 떠난 항구가 영암에 소재했던 것도 관광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보고장군은 이외에도 산동성에도 법화원 등 많은 유적이 남아 있고, 중국인들에게 유명한 인물이다. 따라서 완도의 해신 촬영지도 중국인들에게는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 VI. 결 론

전남도와 광주시는 관광인프라가 열악하여 다양한 유무형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울이나 부산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유치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광주 시와 전남도는 우선 동양문화권으로서 인접국인 일본국과 중국의 관광객을 타게팅하여 직

14) 蜀相(축상) 杜甫(두보)

丞相祠堂何處尋 錦官城外柏森森 映塔碧草自春色 隔葉黃鸝空好音  
三顧頻煩天下計 兩朝開濟老臣心 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

15) 秋夜雨中 崔致遠

秋風唯苦吟 世路少知音 窗外三更雨 燈前萬里心

접 유치하거나 이 지역까지 관광코스를 연장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최대 인접국이고 관광대국인 중국인의 잠재적인 해외관광수요를 내다보고 그들의 관광성향과 관광욕구(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취향에 맞도록 지역의 관광상품과 관광코스를 흥미 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지역에 산재하는 각종 역사와 문화자원중 중국과 연관이 있고 중국인이 흥미를 가진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마케팅하여 중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남도문화관광을 만들어 가야 중국관광객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중화사상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존 문화관광자원을 현대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중국관광객을 모객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관광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 지역에 중국관광객들이 어메니티를 느낄 수 있는 차이나타운 성격의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지역의 기존 유무형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성격의 접근과 더불어 하드웨어 차원에서 중국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자면 그들의 관광이 쾌적하고 편안하도록 관광시설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국경제의 중심지역인 상해 일대의 경제권은 이 지역과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업화과정의 낙후를 관광산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수도권으로부터 원격지인 특성 때문에 산업화에서 낙후된 지역경제는 관광업을 포함한 21세기 문화서비스산업 측면에서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의 부존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호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면 국내에서 이미 고착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불균형의 프레임에서 오랜 기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관광산업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지만 ‘녹색의 땅’이라는 로고를 갖고 있는 청정환경을 잘 홍보하여 청정 이미지를 높이면 생태 및 환경관광이 가능할 것이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매력적인 생태 및 환경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한 중국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틈새 관광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구, "광주전남 중국인관광객 유치방안", 전라남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워크샵, 동신대학교, 2006. 4.
- 곽행구 외 1인, "고유가가 전남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리전 인포』, 136호, 2008. 8.
- 곽행구 외 2인, "중국의 문화관광 수요변화와 광주전남지역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 『문화관광 연구』, 제7권 2호, 2005년 겨울.
- 광주시·전라남도, 『광주·전남 방문의 해 기본계획』, 2007. 9.
- 김성후, "중국인의 지역내 해외거점 형성을 통한 한중교류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중화자본

<동북아연구>

-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2006. 1.
- \_\_\_\_\_, “남도관광의 가능성”, 『지방자치』, 제191호, 2004. 8.
- \_\_\_\_\_, “남도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상품화 방안”, 『경영정보』, 제15권 제2호, 2004.
- \_\_\_\_\_, “동북아 경제통합의 진행과 한국의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6집, 1997.
- 백종채, “전라남도 국제관광 마케팅 발전방안에 관한연구-중국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9.
- 오연호, “한중일 ‘불신의 100년’을 끝내려면”, 인터넷 중앙일보, 2011. 6. 14.
- 이상직외 2인, 『觀光産業의 發展方案』, 한국산업연구원, 2000. 7.
- 유경훈,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 허브 ‘날개짓’: 관광지자체를 가다-광주광역시편 정책&비전”, 『관광저널』, 47호, 2008. 1.
- 전라남도 관광문화국,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추진상황보고』, 2008.
- 주동식, “남도관광자원 국내외 알려 산업으로 ‘우뚛’”, 『자치평론 창간호』 전남매일, 2009. 1.
- 한강희, “스토리텔링과 문화관광”, 『전남문화관광스토리텔링 녹색의 땅 전남으로 초대』, 전라남도, 2007.
- 한국일보, 2011. 6. 26.
-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국제화-전라남도”, 『지방의국제화 (Globalization): 재단5주년 기념논문집』, 1999.
- Balassa, Bel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61.

《Abstract》

## The Inducement of Chinese Tourists to Both Gwangju City and Chonnam Province.

Kim, Sung-Hoo · Kim, Jeong-Gu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implication of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coming Chinese tourists and region economic integration, introducing potential regional tourism resources for them and some methods to induce them to the regions of Kwangju City and Chollanamdo Province.

A recent improvement in accessibility to Gwangju-Jeonnam region was made by the opening of air transportation between Muan International Airpoet in Korea and some Chinese cities, now Shanghai only. But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various region's tourism resources has not been well-established yet.

In the meantime, many tourism attractions in the region have been recognized increasingly over time. And tourism investigators or researchers in the region began to believe that these attractions might call in much more Chinese travellers into the region than ever. In fact, the growth of the Chinese tourism market is the opportunity for the Gwangju-Jeonnam region to develop its tourism industry, because the region has lots of common such as cultural homogeneity, and is geographically closer than any other regions. To make good use of the opportunity, the whole region has to set up various plans to target potential Chinese tourists.

To achieve the goal of induding Chinese tourists, local governments should implement a variety of policies and utilize all the tourism resources to the extent that Chinese tourists pay attention to them naturally. Otherwise, the region may not escape the vicious circle of low development in the nation.

Key Words : Inducement of Chinese Tourists,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Tourism industry, Tourism resources, Tourism contents

투고일 : 2011.6.28 / 심사일 : 2011.7.10 / 심사완료일 : 2011.8.28